

2003년 환경의 날 행사, 전국에서 다채롭게 개최



6월 5일(목) 환경의 날은 정부공식행사로 COEX 오디토리움에서 기념식을 갖는 것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다채로운 환경 행사가 전개됐다.

지난 “72년 UN은 제27차 UN총회에서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보전의지를 드높이고자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여 매년 기념식을 갖고, 6월을 ‘환경의 달’로 정하여 이 기간동안 환경보전캠페인 등 각종 환경행사를 전개하여 왔다.

법정기념일로는 올해 8회째를 맞는 이번 ‘환경의 날’은 “물 – 20억 인구의 갈망!(Water – Two Billion People are Dying for I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기념식을 위시하여 전국 각지에서 이날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환경보전공모전, 환경사랑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됐다.

정부 기념식은 6월 5일(목) 오전 10시부터 한명숙 환경부장관,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민간 종교 여성단체, 군장병, 산업체 임직원 등 약 1,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COEX 오디토리움에서 거행되며, 이 자리에서는 그간 환경보전에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 30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환경관리연구소 창간 10주년 기념식 및 환경장학금 전달식 가져

환경관리연구소(회장 이용운)는 지난 5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첨단환경기술’ 창간 10주년 기념식 및 환경인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열린 환경공무원상’에 대해 시상했으며, 환경산업체, 공무원 및 환경관계자들이 참석해 창간 10주년을 축하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열린 환경공무원상

- 전라북도청 환경정책과 지방환경사무관 한웅재 상금 300만원
- 창원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주사 이상우 상금 200만원

*환경인자녀 장학금 수상자

- 대학생 :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4학년 이효남,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4학년 이동석, 서울산업대 환경공학과 4학년 지민구 등 각 140만원
- 고등학생 : 완산외국어정보고 김자영, 주례여고 문혜연, 성지여고 박나영, 동화고 백승아, 세인고 이정열, 전주신흥고 이재형, 광명공업고 임화수, 관악고 양기성, 대구영남고 정재형, 군산동고 하정민 등 10명에게 각 100만원씩 전달
- 중학생 : 시흥중학교 나은진, 장기중학교 이홍택, 완주중학교 장소라 등 각 60만원

OECD 환경분야 위원회 의장단에 첫 진출

환경부 정희석 서기관이 지난 6월 11일 ~ 13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5차 OECD 화학물질 합동위원회」에서 부의장에 선출됐다.

OECD 「화학물질 합동위원회」는 OECD 산하 환경분야 위원회 중 하나인 “화학물질 위원회(Chemicals Committee)”와 화학물질, 농약 및 생명공학에 관한 실무그룹이 공동 참여하는 합동회의로서 화학물질, 농약분야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 관리, 정책대안 제시 및 OECD 관련규정의 제 개정여부 등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환경계소식

정부기관 환경표지제품 구매 간편해져

환경부는 지난 6월 14일 정부 기관의 환경표지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달청에 홈페이지 기능조정을 요청, '나라장터' 코너에 환경표지제품 정보검색 기능과 환경표지제품 구매공급 안내 등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제7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워크숍

한국자질자원연구원(원장 이태섭)은 공주대학교 재활용신소재연구센터, 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 13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제7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워크숍'을 열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현황 및 관련 제도' (공주대 이철호 교수)와 '국내외 비철금속 리사이클링 동향' (자원리사이클링학회 오재현 명예회장) 등에 대한 초청 강연에 이어 비철 금속 재활용분야 및 무기 폐자원 재활용 분야로 나눠 각각 6건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환경부 국장급 인사발령

(6.10) 환경부장관

- ▲ 한강유역환경청장 이사관 전병성 수질보전국장에 보함
- ▲ 국제협력관 이사관 김상일 한강유역환경청장에 보함

(6.4) 대통령

- ▲ 김영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1급상당)에 임함
(2003.6.4 ~ 2005.6.3)

제5회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세미나 및 전시회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차세대 및 G-7사업)으로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촉진을 위한 '제5회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세미나 및 전시회'를 지난 6월 17일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 401호에게 가졌다.

축산폐수 관리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환경부 지난 6월 17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8동 소형강의동에서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중인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공청회로 개최하여 축산관련협회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견을 수렴했다.

식물로 환경오염 치료 국제 심포지엄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식물을 이용해 해결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6월 12일 충북 충주시 상모면 임업연구원 서부임업시험장에서 개막됐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이 주관, "식물에 의한 환경오염 정화"라는 주제로 14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이 심포지엄은 12일 국내외 석학들이 대거 참석, 산업폐수와 폐광지의 중금속, 하천, 쓰레기 매립지의 침출수 등으로 오염된 환경을 식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담배꽁초 투기 신고하면 1만원

서울시는 지난 6월 10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1만원이 지급되며 비닐봉지 등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3만원이다.

인터넷은 환경교육의 바다

인터넷에도 자연은 살아 있다.

자연을 가득 담은 인터넷 사이트들은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으로 제격이다.

환경부가 제작한 '물 사랑 홈페이지' (www.ilovewater.or.kr)에서는 물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물절약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다.

네티즌들의 직접 참여하는 '물 절약 커뮤니티'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으며 물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일과를 일기 형태로 적어가며 실천을 돋는 '물 사랑 일기 쓰기' 코너도 눈길을 끈다.

최근에는 '물사랑 정보검색대회'가 열리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찾아낸 입상자에게 MP3 플레이어, 어학용 전자사전, 전동칫솔 등의 선물도 준다.

강원도, 한강수계관리기금 665억원 확보

강원도는 내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665억원을 지원받

게 된다.

최근 도(道)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2004년도 3천19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 가운데 22%인 665억원을 강원도에 지원키로 했다.

또 이는 올해 지원된 한강수계관리기금 589억원에 비해 13%인 76억원 증가한 액수이다.

환경부, 물사랑 정보검색대회 개최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물사랑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환경부가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계기로 운영하고 있는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 내의 물 관련 각종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기량을 겨루는 대회다.

이상은 환경마크협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받아

이상은(李相垠, 58) 환경마크협회장이 제8회 환경의 날인 지난 6월 5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季회장은 상하수도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국내 상하수도 사업의 기틀을 마련, 상수원 수질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84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직했던 그는 80년대 말 세계 은행의 지원으로 상하수도 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연구를 맡았다.

무료설치 절수장치 물 절약 성과

충남 공주시가 물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와 업소 등에 무료로 설치해준 수돗물 절수장치가 물 절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5일 시에 따르면 상수도 관련부서가 지난해 주택 2천83곳(변기 606개, 샤워시설 및 수도 1천476개), 학교 등 공공시설 455곳(변기 90개, 수도 365개), 기타(병원 및 업소) 646곳(변기 277개, 수도 369개) 등 모두 3천184곳에 수돗물 절수장치를 설치해 주었다.

이 결과 절수장치가 설치된 양변기와 세면기의 물 소비가 기존 소비량보다 20%정도 줄고 샤워시설은 4인 기준으로 개량

형은 15%, 전량 개량형은 30%까지 절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민주, 새만금사업 특별위 구성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춤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무회의를 열어 새만금 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정세균 의원이 선임됐으며 정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외부인사 1명을 공동 민간위원장으로 선임할 예정.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는 내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농림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기획단도 만들어진다.

무인카메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대구 남구청은 최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카메라 설치지역은 이천동 삼부빌라트 앞 등 관내 6개 지역이며 구청은 쓰레기 불법배출 장면이 촬영되면 정밀 화면분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 환경영향 평가 사후 감시 강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제주도내 각종 개발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관광지 조성, 골프장 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후 감시활동이 미흡해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환경단체와 전문가 각 3명, 관계공무원 4명 등 10명으로 환경감시단을 구성, 지난 6월부터 사후 감시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도 자체적으로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을 구성, 운영해 왔으나 6월부터는 환경부와 협의해 만든 "사업장 사후 공동관리 지침"에 따라 환경부와 합동으로 환경감시활동을 벌인다.

환경계소식

수도권 폐가전제품 재활용센터 용인시 문열어

지난 5월 30일 문을 연 국내 최대 전자제품 재생센터인 경기 용인시 '수도권 국내 최대규모의 전자제품 재활용 센터'가 경기 용인시에 문을 열었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는 지난 30일 '수도권 전자제품 리사이클링센터'의 준공식을 갖고 센터 가동을 시작했다. 2만5000m² 부지에 건물면적이 1만1000m²에 이르는 이 센터는 국내 폐전자제품 발생량의 30%에 이르는 연간 36만3000 대의 가전제품을 재활용 처리할 계획이다. 프레온가스(CFC) 등 환경유해물질 회수작업 외에 해체 분해 파쇄 선별 등의 작업을 통해 연간 철 6530t, 알루미늄 1510t, 구리 580t 등 1만 2460t의 원자재를 재생산한다.

이 센터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위니아마도 등 전자업체들이 환경부가 시행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200억원을 투자해 건설했다.

환경관리공단 「2003 환경보전홍보대상」 수상작 선정

「세계 환경의 날(6. 5.)」을 기념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이사장 : 李萬儀)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2003 환경보전홍보대상」 공모전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환경보전홍보대상 공모전은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공모전부터는 접수 및 심사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이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번 공모전에는 TV캠페인부문 15점, 신문 잡지광고부문 542점, 사진부문 205점 등 총 762점이 출품되어 TV캠페인부문과 신문 잡지광고부문에서 각각 10점, 사진부문에서 31점의 우수작이 선정되었다.

환경부 다면평가제 1 ~ 5급 확대 실시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5, 6급 직원의 4, 5급 승진에 국한돼 실시됐던 다면평가제가 1급에서 5급까지 확대된다.

또 주무부서 과장, 계장에 대한 직위공모제와 인사추천제도 등이 운영된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과 김기덕 직장협의회장은 최근 올해 첫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친환경적인 녹색 육군 모델 제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를 맞아 육군이 친환경적인 '녹색 육군'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육군 1군사령부는 지난 6월 2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노도부대에서 환경부, 강원도, 인제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사단장급 지휘관 등 민·관·군 관계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애전 부대에 적용 가능한 환경모델을 선보였다.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 한국환경정책 학회(회장 윤양수), 환경정의시민연대(공동대표 이정전)는 공동으로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5월 28일(수) 14시부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환경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나 부정의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평한 환경보전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제4회 부산녹색환경상 수상자 선정

부산의 환경보전에 힘쓴 제4회 부산녹색환경상 수상자로 대상에 윤행(영도구 청학2동)씨, 본상에 녹색가족부문 강수근(사상구 모라2동)씨, 녹색단체부문 사단법인 100만평 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녹색기업부문 CJ(주) 부산 2공장 등이 각각 선정됐다고 부산시가 지난 5월 28일 밝혔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원, 본상 수상자에게는 200만원의 시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환경부·산림청 업무연찬회 개최

곽결호(郭決鎬) 환경부 차관과 최종수(崔鍾秀) 산림청장은 지난 5월 27일 오후 광릉 국립수목원에서 양 부처간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과장과 산림청 사유림 관리국 국·과장이 배석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기법에 관한 세미나 개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의 양상은 자동차의 증가 등에 따른 애너지 소모량의 증가 같은 직접적인 요인에 의한 1차 오염물질 보다는 광화학스모그, 산성비 등과 같은 2차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에서 현실적인 대기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난 6월 5일 인제대학교 환경시스템학부 1층 세미나실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기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환경시설운용 교육 실시

2002년 환경오염유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홈닥터사업을 수행한 결과 별간한 환경시설 운용을 위한 MANUAL을 교재로 관련 업종의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시설 운영 및 관리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환경기술인의 자질을 향상시켜 유사 환경오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환경관련 기술력을 향상시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6월 10일 창원대학교 산학협동관 4층 멀티미디어 1실에서 환경시설 운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계자 연찬회 개최

전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담당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및 방향을 소개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현안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자유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은 지난 6월 19일에서 20일 무주리조트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관계자와 함께 연찬회를 개최했다.

지역환경개발센터 사업성과 사례집 발간

지역 내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설립된 16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성과를 담은 사례집이 지난 5월 26일 발간됐다.

이 책에는 공장 내의 악취문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오수·

하수처리 개선 방법, 폐기물소각로 운영 개선방안, 빗물 집수 방법 등 지난 98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센터가 마련한 414개의 환경현안 대책 가운데 50개가 상세하게 실려 있다.

환경마크협회, 절수형 수도꼭지 환경표지 인증

환경마크협회(회장 이상은)는 (주)다다의 절수형 수도꼭지 제품 61개에 대해 환경표지를 인증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표지제도는 국내 절전형 기기 기술기준과 국제에너지스타 기준에 적합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친환경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92년 국내에 도입됐다.

환경부 첫 정책보좌관 양상현씨

“환경과 관련한 대외정책을 장관과 직원들에게 가감없이 제언하며 환경부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장관보좌관 직책이 신설된 후 환경부에 첫 취임한 양상현(梁祥顯, 39) 정책보좌관의 각오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이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0년부터 의원보좌관을, 2001년부터는 여성부 장관 비서관을 맡는 등 한 장관과 고락을 함께 해온 양 정책보좌관의 최대 이점은 장관과 ‘코드’가 맞는다는 점.

폐기물처리기술 워크샵 개최

환경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환경부 및 제주도가 후원하는 「2003년도 폐기물처리기술 워크샵」을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풍림콘도』에서 개최했다.

2002년 기준 환경산업 통계조사 실시

환경부는 효과적인 국가환경산업 기술정책의 수립 평가 및 WTO 환경서비스시장 개방협상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지난 6월 2주간 전국의 약 8,200여개 환경관련 산업체를 대상으로 각 유역(지방)환경청 직원 및 통계전문 임시 조사원에 의한 환경산업 통계조사를 실시했다. 